

중국 대지진 참사

“여진 온다” 수십만명 한밤 대피

청두 시내 전역 교통체증 대혼란

대지진이 강타한 중국 쓰촨성에 또 다시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경고가 나오면서 쓰촨성 주민 수십만 명이 한밤 긴급 대피길에 올랐다.

지진이 신물이 난 쓰촨성 주민들은 19일 밤 텔레비전을 통해 “원환현에서 19~20일 리히터 규모 6~7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지진국의 예보 방송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쓰촨성 성도인 청두 시민 수십만명은 집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의자 등을 들고 길거리로 달려나왔으며 자동차를 탄 시민들이 고속도로로 몰려가면서 시내 전역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또 청두 시내 대형 호텔들도 “호텔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다”면서 투숙객들에게 긴급대피할 것을 요구해 투숙객들이 저녁을 먹다가 이불과 베개를 들고 길거리로 급히 몰려나가는 소동을 빚었다.

청두에 사는 직장인 선환(20)씨는 “오늘 밤 강력한 여진이 온다는 뉴스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대피했다”면서 “오늘 특히 강한 여진이 온다고 해 처음 이 곳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원서 한국상회 청두지회장도 “청두 시민들은 탄산대지진이 밤에 일어나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0% 이상이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고 말했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충칭지하철 시

민들도 이날 밤 9시30분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방송을 받고 깜짝 놀라 광장이나 교외로 뛰쳐나가면서 시내 곳곳이 대혼란을 빚었다.

이번 지진 진앙지인 원환현 인근에 위치한 멘양의 한 병원은 환자들을 역전 광장으로 긴급 대피시키는가 하면 임시 천막과 병상, 치료대 등을 가설하는 소동까지 연출했다.

실제로 20일 오전 1시52분께 이번 지진으로 1천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쓰촨성 핑우현에서 리히터 규모 5.0의 여진이 발생하자 쓰촨성 주민들은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번 대소동은 중국의 10억 인구가 지진 발생시간인 오후 2시28분부터 3분 동안 전국에서 사이렌 소리에 맞춰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 지 몇시간 후에 발생한 것이다.

이밖에 원환현 인수진에서는 도로 보수작업을 하던 인민해방군 등 구조대원 200여명이 갑자기 흘러내린 흙

과 바위 더미에 매몰돼 사흘째 실종상태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 원환현에서 가까운 리현에서는 지난 18일 도로 복구작업을 하던 인민해방군 등 158명이 산사태로 숨지는 등 구조대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 산하 지진재난구조지휘부는 19일 오후 8시 현재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4천73명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보수작업을 하던 인민해방군 등 구조대원 22만109명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9일 중국 서남부 쓰촨성 청두의 텐푸광장에 서있는 고 미오쩌둥 주석의 대형 상 앞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지난 12일의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개구리·두꺼비 또 폐지어 이동 ‘강진 공포’

쓰촨성 인근 구이저우성…현장 조사단 급파

중국 쓰촨성 이웃지역인 구이저우(貴州)성에서 개구리와 두꺼비들이 폐지어 이동하자 주민들이 또 다시 강진이 닥칠 징조라며 공포에 떨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19일 밤 쓰촨성 남부와 충칭 직할시와 맞닿은 구이저우성 북부 쑤이시 통쯔현에서 개구리와 두꺼비들이 폐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에 따라 구이저우성 지진국에는 19일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강진 발생 가능성을 묻는 문의전화가 폭주했으며 정응타오 쑤이시 부시장은 통쯔현 현장에 조사단을 긴급 파견했다.

원환진 구이저우성 지진국장은 “구이저우성의 지질구조는 안정적이며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면서 “원환 대지진 이후 여진이 발생했지만 구이저우성에는 피

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천명의 쑤이시 주민들은 “쑤이시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면서 광장이나 넓은 평지에서 밤을 새웠으며 귀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쓰촨성 원환 대지진 발생을 사흘 앞둔 지난 9일 진앙지 인근의 장수성 타이저우 등에서는 수십만마리의 두꺼비들이 폐지어 이동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었다.

연합뉴스

한국 400만달러 추가 지원

정부는 중국의 대지진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중국 측이 추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400만달러 규모의 물자 등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집행한 100만달러를 포함해 이번 지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 500만달러에 달한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중국측의 지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며 의약품과 천막 등 구호 물자 위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케인-오바마, 양자 대결 본격화

美대선 양측 연일 공방전

올해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과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간의 공방전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민주당 경선 완주를 다짐하며 막판 세력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본선 격돌이 유력시되는 오바마와 매케인 두 후보는 공격의 초점을 서로에게 맞추며 양자 대결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매케인은 19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레스토라먼트 연설을 통해 이란, 북한, 쿠바 등 적성국 지도자들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오바마의 주장은 그가 “얼마나 경험이 없고, 판단력이 무모한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공격했다.

만일 미국 대통령이 이란 지도자와 대화할 경우 그의 국내외적 정통성을 높여 핵 야망 포기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그 같은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현실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매케인은 주장했다. 매케인은 특히 이란에 이라크에 치명적인 살상무기

를 공급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이란의 위험성을 집중 거론했다. 매케인은 이와 함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다짐하고 있는 농업지원법에 대한 반대사를 명확히 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불요불급한 농업관세와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그러나 몬태나주 유세를 통해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해 소련과 대화의 문을 열어줬음을 지적하며 “왜 우리가 적들과 대화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오바마는 “만나기도 전에 어떤 나라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순진하고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매케인과 오바마 진영은 또 로비회사 경영자인 매케인 참모의 해임을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매케인측은 선거캠프 재정위원장인 톰 뢰플러가 로비회사인 뢰플러그룹 대표라는 이유로 전날 해임한 것은 위싱턴 정가에서 로비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매케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힐 “北 핵프로그램 조만간 신고”

한미일 6자회담 대표 회동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조만간 핵프로그램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과 3자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 6자회담이 ‘아주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주내에 ‘빠른 속도’가 날 것이다.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신고가 이뤄질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힌 5개월을 끌어난 북핵신고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담긴 내용과 관련, “(그것은) 패키지로 북핵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북-시리아 핵거래선 의혹 및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등이 어떤 형태로든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5월말까지 북핵 신고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

다면서 “나는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방문해 좀 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방문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숙 본부장은 “한·미·일 3자 대표의 북핵프로그램 신고와 검증, 차기 6자회담 개최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3자든 4자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키 아주국장은 일본의 현안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육·해·공 장성 400명 독도합회의 27일부터 한달간

육·해·공군 전체 장성들이 참가하는 ‘무궁화회의’가 27일부터 한달간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에서 개최된다고 합참이 20일 밝혔다.

이행은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준장 이상 400여명의 장성들이 2박3일씩 총 5개 기수로 나눠 ‘국방개혁 2020’ 추진현황 등 주요 국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의, 초빙강연, 이사회 국방장관, 김태영 합참

의장, 육·해·공군 총장과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김숙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오명 건국대 총장, 조영길 전 국방장관, 조선희 연합사 참모장 등이 초빙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합참 관계자는 “건군 60주년을 맞는 올해 무궁화 회의는 우리 나

라의 조선 기술로 건조한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에서 개최된다”며 “이는 합참 체제 기회가 적은 육군과 공군 장성들을 위한 배려로 해군에 대한 이해와 합동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도함은 장성들을 태우고 경쾌함을 벗어나 인근 서해상으로 기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림정공(주)
 1. 도로, 교량, 터널, 방수, 배수, 배수시설물(배수관, 배수펌프, 배수정, 배수정수조)
 2.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물(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3.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4.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5.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6.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7.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8.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9.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10. 하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배수관, 배수정, 배수정수조)

북바다 농물탕

북바다 농물탕
 1. 북바다 농물탕 (매일)
 2. 북바다 농물탕 (매일)
 3. 북바다 농물탕 (매일)
 4. 북바다 농물탕 (매일)
 5. 북바다 농물탕 (매일)
 6. 북바다 농물탕 (매일)
 7. 북바다 농물탕 (매일)
 8. 북바다 농물탕 (매일)
 9. 북바다 농물탕 (매일)
 10. 북바다 농물탕 (매일)